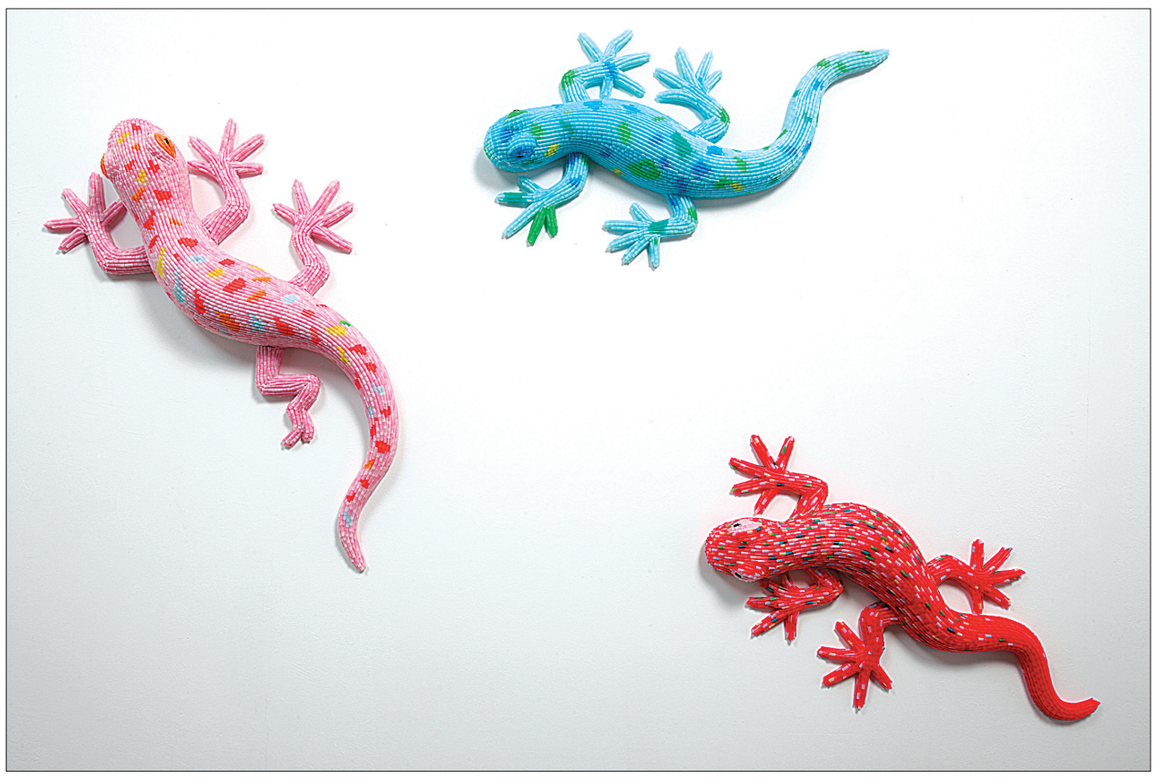
모든 존재의 '쓰임'과 '쓸모'에 대하여

프로젝트 공 '어떤 쓰임' 展

종로 탑골미술관 7월 7일까지
김태연 · 정찬부 작가 참여해
일회용품서 사물 '가치' 발견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일회용 빨대를 이용해 만든 정찬부 作, Antibarometer.

탑골미술관(관장 희유)은 7월 7일까지 탑골미술관 '프로젝트 공'의 첫 번째 전시 '어떤 쓰임'을 개최한다.

탑골미술관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프로젝트 공'은 전문 작가와 함께 공감, 공유, 공생의 키워드 '공'을 다양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기획프로젝트이다. 탑골미술관은 '새로운 시대 속 일상으로의 연결'이라는 운영 주제를 반영하여 기후위기와 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나아가 일상 속 사물과 사람에게 주어진 쓰임과 역할이 가진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함께(共)'의 의미를 담아 '어떤 쓰임'을 준비했다.

이번 전시 '어떤 쓰임'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 탄생했지만 순간의 소명을 다하고 버려지는 일회용품의 쓰임에 대한 생태적 문제의식에서 시작해 일상 속 사물과 사람에게 주어진 쓰임과 역할이 가진 의미를 재정의한다. 성별, 연령, 장애 등 사람에게도 단선적으로 역할을 규정하고 선을 긋는 것에 대해 사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주어진 기능에 따라 무언가의 쓸모를 정하고, 사물과 사람에게 주어진 쓰임과 역할을 피상적 조건으로만 가치를 부여하곤 한다. 하지만 어떤 존재든 '쓰임'이 있고, 어떤 방법이든 그것만의 쓸모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김태연 작가, 정찬부 작가는 버려지고 폐기된 비닐과 빨대에 생명력을 불어넣으며 쓰임을 잃어버린 각각의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담아내 예술로 승화시켰다.

김태연 작가는 쓸모가 있음에도 단 한 번의 쓰임으로 버려지는 비닐봉지를 작품의 소재로 사용한다. 폐비닐을 자르고 늘이며 실을 만들고 텍스타일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며 사물의 가치에 대해 재발견하는 시간을 갖는다.

정찬부 작가는 빠르게 소비되고 폐기되는 무수히 많은 빨대를 조각조각 이어 붙여 바위와 동식물로 만들어 도심 속 자연을 만들어낸다. 화려한 색상의 빨대는 카멜레온처럼 다양한 모습과 의미를 담은 작품으로 만들어져 인간에 의해 사라지고 있는 자연의 모습으로 만들어간다.

이번 전시는 사람에게 단선적으로 가치를 부여하는 편견을 깨는 '다양성의 힘'을 더해 관람객의 목소리로 작품이 완성되는 참여형 코너도 준비되어 있다. 일차방정식(y=ax+b)에서 착안한 이 작품은 '지금의 내(a)'가 '내가 바라는 나(y)'의 모습을 위해 필요한 '무엇(b)'에 답하는 관람객의 이야기로 채워나간다. 링크를 통해 모인 답변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며 우리의 존재에 부여하는 역할을 해석한다.

참여형 전시 코너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나(a)를 답하고(https://www.menti.com/ogyuc47hks), 내가 바라는 나를 위해 필요한 것(b)을 적으면 된다.(https://www.menti.com/y9ddx61rnx)

전시를 관람한 한 어르신은 "비록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나(a)이지만 뭔가 배우고 익히면(b) 언젠가 휴대폰만 들고도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꿈(y)을 각고 있다"며 해당 코너에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전시에는 어르신을 통해 다른 쓰임을 갖게 된 업사이클링 작품을 받아볼 수 있는 특별한 SNS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다. 주변에 있는 사소한 사물의 인증사진을 찍고 그 사물의 쓰임과 거기에 얽혀있는 나만의 이야기를 적어 #어떤쓰임 #탑골미술관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추첨을 통해 시니어공방 어르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특별한 업사이클링 작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SNS 이벤트는 7월 2일까지 진행한다.

'어떤 쓰임'은 쓰임을 다한 사물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는 작품처럼 외적인 조건이나 능력으로 한정되어 해석되는 사람의 역할과 쓸모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특히 익숙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는 관점의 전환을 통해 어떤 형태나 마음을 가지고 각기 다른 속도로 세월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에 고유한 역할과 가치가 있음을 관람객에게 전한다.

탑골미술관 관장 희유 스님은 "이번 전시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사용하고 버리는 일회용품의 쓰임이 예술을 통해 또 다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곁으로 돌아왔음을 알 수 있게 한다"며 "작품을 보면 볼수록 '어떤 쓰임'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에 각자의 속도로 살아가는 존재의 고유한 역할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02)6220-8692

박물관 휴르 '사막에 핀 꽃' 展

박성규 유리공예 소장품 기획전
특별전시실 6월 27일까지 전시


사리함 장엄구 추정 로만글라스.

박물관 휴르는 6월 27일까지 특별전시실에서 박성규 유리공예 소장품전 '사막에 핀 꽃'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박성규 소장가가 20여 년 동안 해외에서 수집한 소장품 중 유리공예품 100여 점을 선보인다.

전시품으로는 로마가 통치했던 동부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로만글라스(로마 유리)와 시리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등지의 사막도시에서 직접 수집한 유리공예품이 전시되며 사리장엄구로 추정되는 공예품도 함께 전시된다.

8000여 년 전 지중해 연안 페니키아 모래 위, 화산에 의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유리는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에서 만들기 시작했으며, 로마인들은 기원전 3세기 경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유리는 단순한 물질이 아닌 인류문화의 귀중한 부분이며 고대인들의 '미(美)'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문화, 예술적 역사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유리는 삼국시대 육로로는 중앙아시아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과 한반도로 전해졌고, 해로로는 아라비아해를 따라 인도, 광저우를 지나 경주로 전해졌다. 고급 장식품으로 왕실에서 사용되거나 사리장엄구 등 불교 공양구로도 사용됐다. 익산의 왕궁리 5층석탑 사리장엄구(국보 제123호)와 칠곡의 송림사 5층전탑 등에서 나온 사리장엄구(보물 제325호)가 각각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다.

소장가 박성규는 "불연 있는 유리공예품이 재조명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전시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053)759-3902

박재완 기자

사경장이 보여주는 사경의 진면목


융복합사경1-천부경 만다라-자색지, 금니, 녹교, 명반, 석채, 호분, 채묵, 청묵

김경호 사경장 보유자 인정 회향전
전북예술회관 차오름 6월 12~24일

전통, 융복합사경 등 40여 점 전시
2020년 첫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

지난해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 첫 보유자로 인정된 김경호 사경장이 보유자 인정 회향전을 연다.

6월 12일부터 24일까지 전북예술회관 차오름 1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김경호 사경장은 백지묵서 〈화엄경 보현행원품〉 〈반야심경〉 등의 전통사경과 〈10음절만트라(십상자재도)〉 등의 융복합사경, 〈이승엽 아시아 홈런 신기록 작성 공로패〉 등의 사경을 현대적으로 응용하여 전통사경의 영역을 확장한 생활 속의 사경, 그리고 기타 서화까지 자신의 사경세계를 망라하는 작품 40여 점을 선보인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7월 20일 불교 경전을 널리 전하기 위해 옮겨 적는 기술인 '사경장(寫經匠)'을 국가무형문화(제141호) 신규 종목으로 지정하고, 김경호 화엄사 전통사경원장을 보유자로 인정했다. 사경은 고려 시대에 불교가 성행하면서 전성기를 맞았으며 충렬왕 때는 중국에 수백 명의 사경승을 파견하는 등 대외적으로 고려사경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다. 조선 시대에 접어들어 억불숭유의 기조로 인해 쇠퇴했으나 일부 왕실과 사찰에 의해 명맥이 유지되어 왔다.

김경호 사경장은 지난 40여 년간 사경작업에 매달려온 장인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금니사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금분과 종이를 연구하고 각 시대별 사경을 연구해 우리 사경의 전통방식을 되살려냈다.

김경호 사경장은 김경호 원장은 1963년 전북 김제에서 태어났다.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국대학교 대학원미술사학과(사경 전공, 문학 석사)를 졸업했다. 2010년 전통사경 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지정 제2010-5호)로 지정됐다. 2000년 서울 동국대문화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외길 김경호 사경전)을 시작으로 20여 회의 개인전 및 초대개인전을 열었다. 연세대학교 사회교육원과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사경지도자과정 강사를 지냈다. 제1회 불교사경대회 대상 등 다수 수상했으며, 시집 〈학의 울음〉과 한국 최초의 사경 개론서 〈한국의 사경〉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한국전통사경연구원과 화엄사 전통사경원 원장을 맡고 있으며, 2020년 국가무형문화(제141호) 사경장 보유자로 인정됐다.

(063)230-7405

박재완 기자

법보신문 공익법인 일일시호일

불기 2565(2021) 십시일반 이주민 돕기
대한불교조계종 총본산 조계사·법보신문 공동 캠페인



두 다리는 잘렸지만
희망마저 잃을 수 없어요

스리랑카 출신 이주민 노민다씨 쓰레기 분쇄기 수리 중 두 다리 잘려
고액의 양쪽 의족 비용에 또 좌절… 통증과 사고 악몽에 잠도 못 이뤄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2-725-701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